



## ■ 남미국가연합 출범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이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으로부터 남미국가연합기를 넘겨받고 있다.

지역 세력의 이해에 부딪혀 좌절하고 말았다. 볼리바르의 꿈은 지난 2004년 페루의 고도(古都) 쿠스코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남미국가공동체(CASA)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남미 정상들은 정치·경제·사회의 통합을 위한 세부적인 통합계획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출범한 남미국가연합의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기아나, 파라과이, 페루,

5월 23일(현지시간) 남미 12개국 정상과 정부대표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 정상회담을 통해 남미국가연합(UNASUR) 창설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남미에서도 3억9천240만 명의 인구나 2조3천49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갖춘 거대 기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남미국가연합은 ‘시몬 볼리바르의 꿈’이 실현된 것이다. 19세기 초 남미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킨 시몬 볼리바르는 남미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고자 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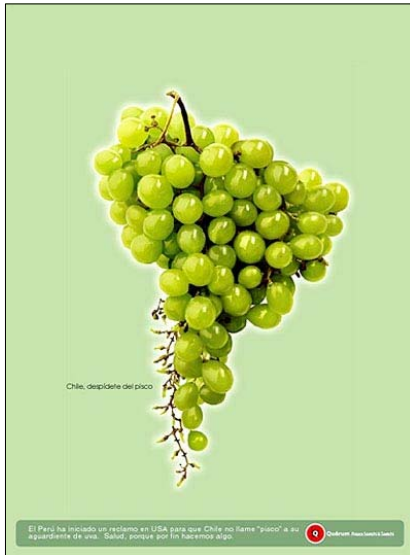


남미 12개국 정상들이 남미국가연합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 상설사무국을 개설하고 고위급 협의기구와 외무장관 협의회, 정부대표 협의회 등 집행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또 매년 한 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연 2회 외무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

페루의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으로부터 남미국가연합 순번의장국 지위를 넘겨받은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이날 순번의장 수락 연설에서 “남미국가연합은 21세기를 맞아 남미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 기구가 될 것”이라며 남미국가 연합 출범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회원국 간의 경제력 격차, 이념적 편차가 큰 만큼 남미국가연합이 순항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조정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 ■ 페루와 칠레, 피스코 전쟁에 이어 감자 전쟁



“칠레는 피스코에서 손 떼라”라는 페루의 광고

페루와 칠레 양국 관계가 피스코에 이어 이번에는 감자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다. 원인은 칠레의 농업장관이 5월 26일 전 세계 감자의 99%가 칠레에서 기원했다고 말한 때문이다.

이에 대해 페루는, 감자의 원산지는 티티카카호 근처 안데스 산맥이며, 이 지역은 대부분 페루 땅이라고 반박했다. 페루는 3천여종의 감자가 있으며, 주식으로 이용하기에 그만큼 자부심도 강하다. 특히 잉카 시대부터 고지대의 추운 기후를 이용해 추노라는 냉동건조

감자를 만들어 먹었던 페루인이기에 칠레 농업장관의 발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감자를 둘러싼 페루와 칠레의 논쟁은 두 나라의 해묵은 감정의 앙금을 드러낸 사건이다. 몇 년 전에 양국은 포도가 원료이며 소주와 유사한 대중적인 술 ‘피스코’의 종주국 자리를 놓고 광고전을 벌이기도 했다. 세계적인 포도 생산국으로 발돋움한 칠레가 피스코의 종주국임을 주장하자, 이에 반발한 페루가 라틴아메리카 모양의 포도송이에서 칠레 부분의 포도를 모두 따버린 광고를 내보냈다.

이러한 페루와 칠레의 다툼 이면에는 영토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19세기 말 초석전쟁(1879~1884)에서 승리한 칠레는 페루의 영토를 할양받아 아직까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국가의 자존심을 내걸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 ■ 푸에르토리코, 미국에 자결권 요구

최근 유엔 탈식민특별위원회는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제출한 푸에르토리코의 지위와 자결권에 대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탈식민특별 위원회에 참석한 푸에르토리코 주지사 아니발 아세베도 빌라는 “미국 특히 부시행정부가 주민의 동의 없이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유엔총회 결의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에르토리코는 1898년부터 미국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아왔으며, 1952년에는 국방·외교·통화를 제외한 내정을 이양받아 미국의 자치령이 됐다. 1967년 이래, 완전한 독립과 미국편입을 두고 3차례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국민들은 현상유지를 선택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이제 푸에르토리코는 독립이든 편입이든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은근히 압박하자 푸에르토리코의 자치령 유지를 지지하던 대중민주당의 소속의 아세베도 주지사가 태도를 바꿔 자결권 수호에 나선 것이다.

완전독립을 주장하는 야당 ‘오스토소 민족독립운동당’의 훌리오 무리엔테는 우선 미국은 자결권을 넘겨주고, 점진적으로 모든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 통과로 미국은 빠른 시일내에 푸에르토리코인에게 자결권을 부여할 것으로 유엔 소식통은 전망했다.



푸에르토리코의 주지사 아니발 아세베도



## ■ 유네스코, 마추픽추 유물 본국송환 지지

페루 정부는 지난 4월 16일 예일대학교에 4만6천여 점에 해당하는 마추픽추 유물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 유물들은 1912년 미국의 역사학자인 빙햄(Hiram



빙햄이 무단 반출하여 예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마추픽추 유물. 예일대학교는 유물을 반환을 약속했다.

Bingham)이 마추픽추에서 가져간 것이다. 이에 대해 페루 유네스코 지부 대변인인 캐서린 뮐러 마린(Katherine Muller Marin)는 지난 5월 5일 “유물의 본국 송환은 고유한 문화유산 복원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페루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 해 9월 페루 정부가 예일대학교와 맺은 양해각서에 따르면 페루 정부는 400여 점 만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유물은 반환 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채 예일대학교에 남아 있게 된다. 이에 페루 정부가 예일대학교에 양해각서 수정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예일대학교 측은 마추픽추 유물의 소유권이 페루 정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2년 내에 384점의 유물만을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유물의 일부는 레기아(Augusto B. Leguía, 1908~1912) 정부의 잠정적 승인에 의해 유출된 것이고, 일부는 볼리비아 국경지대를 통해 불법으로 유출된 것들이다.

## ■ 멕시코 한국학회 출범

멕시코에서 한국의 언어·경제·정치 등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5월 26일 ‘멕시코 한국학회’를 결성했다. 멕시코시티 남부에 위치한 국립멕시코대학에서 열린 ‘멕시코 한국학회’ 창립총회에는 멕시코 전역에서 한국학 전공자 7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학회창립 총회에 초청을 받은 멕시코 주재 원종찬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학 전공 학자들의 노력을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지식인들의 노력 속에 양국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고 “앞으로 학회를 통해 한국학 전공자들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원 대사는 또 “한국과 멕시코의 성숙한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매년 2명에 불과했던 초청 교류 인사의 폭을 1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멕시코에서 ‘한국학의 대부’로 통하는 알프레도 로메로 교수(UNAM)의 사회로 ▲역사,문화, 언어교육 ▲정치,사회, 국제관계 ▲경제와 발전 등 3개 테마로 나눠 멕시코에서 한국학 연구의 실상과 장래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원 대사는 이날 저녁 한국학회 출범의 산파역을 담당한 멕시코 학자들과 멕시코 대학들에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는 교포교수들 등 10여명을 관저로 초청하여 만찬을 같이하며 의견을 나눴다.

멕시코 한국학회는 우리 대사관과 국제교류재단이 모임을 주선하는 한편 전국에서 학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함에 따라 어렵게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연합뉴스]

## ■ 사진으로 보는 라틴아메리카 뉴스



콜롬비아 출신의 가수 샤키라(Shakira)가 주도하는 라틴아메리카 불우아동 돕기 자선 콘서트(Alas)가 지난 5월 17일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에서 동시에 열렸다. 멕시코 공연에는 리키 마틴 등이 참석하여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알라스(ALAS: América Latina en Acción Solidaria)는 2006년 12월 샤키라와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주도하여 창립한 재단이다. 사진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공연에서 알레한드로 산스와 열창하는 샤키라(위)와 공연 관객



지난 5월 2일부터 가스와 용암을 분출하기 시작한 칠레 남단의 차이텐(Chaitén) 화산이 6일 대규모 폭발을 일으켰다. 이번 폭발을 9,370년 만에 처음이었다. 칠레 당국은 4,000명의 주민에게 긴급대피령을 내렸으나 워낙 폭발의 규모가 커서 화산분출물이 도시를 파괴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화산재가 15cm나 쌓였다.